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장 **한동업**

포천시 문화예술교육시스템 구축해야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는 2005년2월 창립하여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동업(39·사진)지부장은 6년 전에 포천에 들어와 청소년교육 사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에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와 무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같은 노력이 이제 서서히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밝히는 한동업 지부장은 "포천에나리를 청소년들에게 전승, 계승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노력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는 창수면 오거리로 전제하고 있는 포천농악을 발굴하여 무대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지부장은 또 포천에나리를 한 장소에 교육할 수 있는 문화학교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분한 자원과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어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지부장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일일 필봉농악전수회관에서 필봉농악을 전수하도록 하고

있다. 필봉농악전수회관은 심도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일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에서 필봉농악을 배우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한다.

한 지부장은 "포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전통학교로 지정하고자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며 "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한 지부장은 무용협회 정기공연에는 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가 가득찬다. 포천시 관내 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용과 사물놀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500여명에 1인당 2~3명씩 공연장에 오도록 하면 대극장 무대가 꽉 찬다. 다만,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다.

한 지부장은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용과 사물놀이, 농악, 매너리, 풀리리, 경기민요 등 다양한 과목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하면 포천시민들에게 우수한 문화교육이 가능하다고 한다.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화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소가 없으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 지부장은 지난 6년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과 사물놀이 교육을 통해 포천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포천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 지부장은 시간이 나면 학생들을 데리고 의정부나 서울 예술의전당으로 나간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장르의 예술무대를 감상하도록 한다. 그러면 학생들의 자세가 달라진다.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

한 지부장은 무용협회 발전을 위해 포천시가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 너무나 감사하며 포천반월아트홀은 큰 자산으로 더욱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학교나 교육당국에 바라는 사항은 예술교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요구할 때가 있어 안타깝다. 장기적인 교육계획이 요구된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한 지부장은 예술활동에 대해 다각적인 보도가 아쉽다. 특히



청소년교육사업에 보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용협회 포천시지부는 올해 왕방초등학교, 포천초등학교, 신철원초등학교 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어린이무용단을 창단할 계획이다.

또 포천농악 발굴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포천문화원의 협조를 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월에는 필리핀 공연, 6월에는 포천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 7월에는 벨라루시 공연을 위한 공연과 전국무용제 예선대회, 11월에는 마홀예술제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지부장은 "포천시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은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꼭 좋은 예술학교에 가란 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일의 중심에 포천에총이 서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54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 목은 이색(牧隱 李穡)

공민왕 17년, 시종 유탁이 왕에게 마암정전(馬岩影殿) 공사를 중지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공민왕은 상소를 보고 노하여 이색에게 유탁을 옥에 가두고 심문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공민왕은 이 기회에 유탁을 제거하기 위해 이색에게 유탁을 사형에 처한다는 교서를 작성하라고 명하였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이색이 물었다. "그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공민왕은 유탁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였다.

"오랫동안 시종으로 있으면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으니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연복사 토지를 빼앗은 죄요, 셋째는 공주가 죽었을 때 사흘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은 죄요, 또 정례의 격을 낮춘 것이 네 번째 죄다. 이보다 불충한 죄가 어디 있는가?"

공민왕의 말을 들은 이색이 아뢰었다.

"그것은 모두 지난 일입니다. 만일 그를 죽이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그가 전하께서 하고자 하는 공사를 중지시키고자 이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전하께서 열거한 네 가지 죄는 죽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왕은 더욱 노하여 다급히 서둘렀다. 하지만 이색은 바닥에 엎드려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제가 차라리 죄를 입을지언정 어찌 감히 없는 죄를 조작하여 교서를 짓겠습니까? 또 상소를 올린 것으로 친다면 유탁뿐 아니라 영도첨의(領都僉議)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영도첨의는 곧 신돈이었다. 때마침 신돈이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 신돈은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오자 부득이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 늙은이도 알고 있었으나 전하께서 노한 까닭에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민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신돈에게까지 화살이 겨누어지자 급히 시종 이춘부가 불러 달라고 하였다. 이춘부가 대령하자 공민왕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대들에게는 임금이 필요 없는 모양이구나. 불충한 자에게 죄를 묻고자 하거늘, 신하가 이토록 어명을 거역하고 있으니 과연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요? 이제 시종 이춘부를 불러 달라고 하라!"

공민왕의 명령이 준엄하였으나 이춘부는 머리를 숙이고 감히 다가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신돈이 공민왕에게 말했다. "시중에게 명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어명을 거역한 자에게 옥새를 봉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공민왕은 이색에게 옥새를 봉하라고 명령했다. 이색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왕이 더욱 노할 것을 염려하여 곧 옥새를 함에 넣고 열쇠를 채웠다. 그런 다음 붓을 들고 함 위에 이렇게 써넣었다. "신(臣) 이색은 삼가 봉한다."

옥새가 봉해지자 왕은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다. "과인이 덕이 없어서 신하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대를 암송하였다 한다. 또한 죽는 날까지 머리를 깎지 않았으며 유학 이외에는 사도(邪道)라는 신념(信念)이 강한 분이였다 한다."

한 때 성균관에서 김강숙(金剛淑)옹이 중국의 105현인을 철폐할 것을 유림에 의결을 통해 크게 혁신운동을 벌이 있었다. 그러나 서석구님은 1960년 전국 유림대회에서 열여섯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았다. 서석구 선생의 공자님 숭배 사상이나 유학운동은 남다른 데가 있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변절과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요즈음 세태에 비추어 볼 때 이철열님이나 서석구님 같은 인물이 내 고향 포천에서 태어나 청도(淸道)를 건다가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嘉慶 崔宗圭 (전 포천향교 전교)

에서 풀러내려다." 공민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후궁으로 물러갔다. 그러고는 앞으로 식사를 가져오지 말라고 좌우로 명하였다.

이튿날, 신돈이 공민왕을 찾아가 말했다. "어명을 어기고 불충한 죄를 저지른 이색을 옥에 가두고 찬성사 이인일과 지도첨의 유연을 시켜 왕명 불복종의 죄를 묻게 하십시오."

이에 공민왕은 이인일과 유연에게 이색을 심문하게 했다. 심문을 받게 된 이색은 땅바닥에 엎드려 울며 소리쳤다. "이 몸은 가난하고 문벌이 변변치 못한 몸으로 외람되어 전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공로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보잘것없는 학식을 가졌다 하여 갑자기 재상에 이르렀으니 전하의 은혜가 크고 깊어 그것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조금이나마 전하의 덕을 높일 수 있다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습니다. 저의 율을 은 옥관(獄官)의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하의 귀에 들리게 하려는 것도 아니며,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이 한 가지 과실로 인하여 전하의 명성이 온 세상과 후세에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남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인일이 이색이 한 말을 공민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말을 들은 공민왕은 마침내 감동하여 이색을 풀어주고 유탁도 석방하였다. 그런 다음 공민왕은 이색을 불러 말했다.

"목욕하고 나오시오, 그대와 더불어 일할 것이요." 그리하여 이색은 다시 조정에 들어올 수 있었다.

훗날 이색은 위화도 회군에 성공하여 정권을 잡았다. 조선을 개국한 후 이색을 시기하던 정도전 등이 그를 죽이려고 청했으나 이색은 그 말만 들은 따르지 않았다. 이색은 예전부터 이색을 존경하여 일찍이 자신의 자(字)와 당호(堂號), 그리고 둘째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색은 이색에게 이렇게 말했다.

"계수나무 꽃은 가을에 희고 깨끗하오. 또 계수나무와 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소나무만한 것이 없소. 그대가 중하게 여기는 것은 절개와 의리일 것이니 나를 중결(仲潔), 당호를 승헌(松軒)으로 하는 게 어떻겠소? 또 셋째아들의 이름이 방의(芳毅)이니 둘째아들은 방과(芳果)로 짓겠소."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부탁할 정도로 이색은 이색을 존경했다. 그리하여 이색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내 이 옥새를 가지고 덕이 있는 이 옥새를 가지고 덕이 있는 임금을 찾아 삼기거라. 이 나라를 세운 태조인왕 처음부터 왕의 후손이었겠는가? 나는 이제 왕위

를 물려 받았다. 이색에게 그를 만나기 위해 뉘러왔으나 이색은 다만 고개를 숙일 뿐 절을 올리지 않았다. 이색에게 친구간의 예로 대하면서 말했다.

"더이 부족하고 식견이 어두우니 나를 버리지 말고 부디 한 말씀 가르침을 주시오."

이색이 말했다. "방국의 신하로서 살아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보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옵건대 이 몸을 보내주시어 고향에서 죽도록 해주십시오."

잠시 후 곁에 서있던 시종이 그를 신하의 반열로 인도하자 이색이 말했다.

"이 늙은이가 앓을 만한 곳이 없소이다." 그러면서 이색은 뜻밖의 일이 일어나 나가버렸다. 이색에게 그를 한산백(韓山伯)에 제수했으나 끝내 받지 않았다.

이듬해 여름 그는 여주 강가에서 피서하고 있었는데, 이색에게 그를 위해 내시를 파견하여 호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는 도중 독에 중독되어 배에서 죽었다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정도전 일파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태조가 이를 알고 호송하던 내시를 죽이고,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색(李穡) 1328년(충숙왕15)~1396년(조선 태조 5).

이색을 이야기할 때는 그의 아버지 이극(李穀; 1298~1351)을 빼놓을 수 없다. 이극의 호는 가경(稼亭)인데, 신승사대부(新承事大夫)로 유학의 이념으로서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동문선』에 백여 편에 가까운 작품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전체 문학의 대표작인 『죽부인전(竹夫人傳)』을 저술하여 우리 문학사에 큰 자취를 남겼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색은 1341년(충혜왕 복위2)에 진사가 되고, 1348년(충목왕4)에는 원나라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1351년(충정왕3) 부친상을 당해 귀국한 후 정치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향시(鄕試)와 정동행성(征東行省)의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가서 제과(制科)의 회시(會試)에 1등, 전시(殿試)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원나라에서 두루 벼슬을 역임한 그는 다시 귀국하여 인사행정을 주관하고 개혁을 건의하여 정방(政房)을 폐지하였다.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몽주, 이승인 등을 학관으로 채용하여 신유학 보급과 성리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특히 그는 권근(權近), 김종직(金宗直), 변계량(邊季良) 등의 문인을 배출하여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색의 위화도 회군으로 왕이 쫓겨나자 창왕을 옹립함으로써 이색 세력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이색 세력이 세를 잡게 되자 유배되었다가 다시 석방되었다. 1392년 정몽주가 귀국하자 금주(鈐州)로 추방되었다가 여흥, 장흥 등지로 유배된 뒤 풀려 내어 친구로 서로 만날 것을 청하였다. 이색은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부득이 백의(白衣)를 입고 벗짚으로 엮은 모자를 쓴 채 대

〈뮤지컬(Music Hall)〉과 〈멜로드라마(Melodrama)〉



문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코미디 무성영화의 두 거장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과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은 뮤지컬과 보드빌 무대를 통해 연기를 배웠다. 무표정하며 아르바티적인 몸놀림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버스터 키튼은 그의 무성영화에서 보드빌에서 닦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찰리 채플린 역시 슬랩스틱적인 동작과 빼어난 페르소나는 모두 뮤지컬을 통해 닦은 실력이었다. 홍콩 영화배우 성룡(成龍)이 미국의 헐리우드로 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기패턴을 찾고 있을 때 버스터 키튼의 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사실 성룡의 헐리우드 영화 〈상하이 나이트즈(Shanghai Knights)〉에서 보여준 코믹 무술 안무와 아르바티적인 장면들을 보면 버스터 키튼을 떠올리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채플린과 해롤드 로

이드(Harold Lloyd)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헐리우드 무성영화의 전설들인 이들의 연기술은 모두 보드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노래와 춤 그리고 촌극 이외에도 폭예와 마술 등으로 단련되었는데 성룡은 여기에 쿠파(우수)를 접목시켰다.

미국의 보드빌은 처음에 도박과 매춘이 성행하는 하층 이민사회 근처의 싸구려 술집이나 식당에서 시작되었지만 19세기 중엽에는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 중산층들에 의해 성장했다. 지식은 일천하지만 막대한 돈을 번 신중 도시 중산층들은 지적인 연극이나 셰익스피어보다는 부담 없이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을 선호했는데 영국에서는 건물 개념의 뮤지컬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는 뮤지컬과 같은 개념인 보드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산층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었다. 수많은 가수들, 코미디언들, 아르바티틀을 길러준 인물들 버라이어티 쇼는 노래와 춤과 희극에다가 복화술, 변장술, 동물들의 재주를 더해 경쾌한 리듬과 템포로 관객들에게 스틸과 웃음을 안겨 주었다. 그렇지만 이들 공연들은 20세기 초반

까지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고 영화의 발전과 경제공황 그리고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그 명맥을 관광과 오락의 도시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리도(Lido) 쇼와 몰랭루즈(Moulin Rouge), 라스베가스(Las Vegas) 쇼 등은 세계적인 유망하며 한국에서도 호텔들의 극장식 쇼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파리의 리도쇼는 아름다운 무희들의 화려하고 색채 시한 춤이 특징인데 각각의 전통 춤과 마임, 곡에 심지어 아이스 스케이팅까지 볼 수 있어 전성기 뮤지컬의 모습을 현대판으로 재현한 듯하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역시 도시 중산층들이 열광했던 또 다른 공연형식 중에 하나가 멜로드라마(Melodrama)였다. 멜로드라마도 음악과 드라마가 결합된 공연이었는데 보드빌처럼 배우가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은 단순히 배경음악으로써 극적인 부분을 살려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다분히 스테레오 타입의 주인공과 악인이 나오고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클라이막스와 권선징악의 결말은 관객들이 열광하기에 충분했다. 절벽

에서의 투신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무대에 거대한 절벽을 세우고 그 밑에 불을 재울 정도로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했으며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할 만큼의 싸움 장면은 관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멜로드라마나 뮤지컬에서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중산층의 재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산업혁명 이후 발달한 무대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무대기술의 발달은 표현방법의 혁신을 가져왔는데 가스(gas)와 라임라이트(limelight) 그리고 전기로 이어지는 조명은 무대의 환상을 창출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스팀(steam power)을 이용한 강강 무대(sinking stage), 수압을 이용해 움직이는 리프트와 다리(hydraulic lifts and bridges), 전기가 사용되면서 회전 무대(revolving stage)도 일반화 되었다.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명은 멜로드라마나 뮤지컬의 버라이어티한 공연에 큰 공헌을 했지만 본격적인 뮤지컬이 탄생한 이후, 무대 위에 헬리콥터가 오고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 오늘날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188)

명목민관 「이청열(名牧民官 李清烈)」과 서석구(徐錫九)

"나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는 주인을 잃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라 잃은 실움을 한탄하고 노새에게 큰절을 하였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노새가 주인을 보면 반가와 하는 것을 보고 이청열님이 땅국의 실움의 한 마디를 한 대목이다. 한중 13년(1847년) 군내면에서 태어나 1940년 타계하신 이청열님은 상성북리가 고한이며 명문가 고성 이씨 문종의 인물이다. 음보(蔭蔹) : 과거가 아닌 조상의 음사(蔭仕)로 벼슬길에 나가지 받은 보직)로 별군직에 고종 8년(1873년) 나이 26(고종 10년) 친시(親試) : 임금이 친히 임

하여 보는 과거와 같은 성격의 시험)에 급제하여 「훈원원 주부, 「중추부첨지」 사복시정, 「함안군수」를 지냈는데 함안군수 시절 수의사(繡衣使) : 암행어사 같은 성격의 시찰관)의 추천으로 선정되어 배운 공을 인정 받았다. (수 의사-이정래 : 李正來) 고종 19년(1882년)에는 청산진 첨사로 있을 때 큰 공을 세워 「만인산(萬人傘)」을 하사받았다. (백성들 여러명이 공로를 칭송하는 글을 늘어뜨린 우산) 청산진을 떠난 뒤에는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백성들이 전일 사도의 공을 생각하여 세운 선정 공로비)

고종 29년(1892년)에 방어사가 되었으며 고종 31년(1894년)에는 「선유사(宣諭使) : 진압군 사령관」으로 동학군을 진압하였다. 광무 1년(1894년)에 중추원 의관이 되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귀향하여 서당을 세워 인재양성(人材養成)에 힘썼다. 성균관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한다. 이청열님의 제자로는 「서석구(徐錫九)」, 남을 들 수 있는데 서석구님은 고종34년(1897년) 군내면 울피 출생으로 이청열님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이청열님의 제자였던 「서석구」님은 이청열님에게서 천문과 주역을 전수 받았으며 평생 공자상

을 모시고 초하루 그믐에 분향하였으며 조석(朝夕)으로 주역을 암송하였다 한다. 또한 죽는 날까지 머리를 깎지 않았으며 유학 이외에는 사도(邪道)라는 신념(信念)이 강한 분이였다 한다.

한 때 성균관에서 김강숙(金剛淑)옹이 중국의 105현인을 철폐할 것을 유림에 의결을 통해 크게 혁신운동을 벌이 있었다. 그러나 서석구님은 1960년 전국 유림대회에서 열여섯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았다.

서석구 선생의 공자님 숭배 사상이나 유학운동은 남다른 데가 있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변절과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요즈음 세태에 비추어 볼 때 이철열님이나 서석구님 같은 인물이 내 고향 포천에서 태어나 청도(淸道)를 건다가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白雪滿乾坤(백설만건곤)



乾坤夜靜小寒辰 曠野飛雲積四隣 (전근야정소한신 광야비영적사린) 천지가 고요한 밤 소한이 되었는데 광야에는 눈꽃이 이웃에 쌓이면 萬里平原猿狙友 千村籬畔鷓鴣親 (만리평원원저우 천촌리반작아친) 만리평원에는 원숭이와 어미가 놀고 마을마다 발도랑에는 까치와 갈기머리가 친하구나 梧桐月照光耀 松柏風生籟鄉新 (오동월조청광요 송백풍생희향신) 오동나무에 달이 비치니 밝은 빛이 송백에 바람이 부니 향리에 소리가 새롭다. 不吝網常無限感 老翁滿座好詩吟 (불빈망상무한감 로옹만좌호시인) 불변하는 강상은 감회가 무한하고 로옹들은 자리 가득히 앉아 좋은 시를 퍼드다.